

##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김 은 정\*\*

### 차 례

1. 서론
2. 암과 시간의 아이러니
3. 중풍과 모순된 육체의 불협화음
4. 치매와 허위의식의 폭로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 중 크게 암, 중풍, 치매를 중심으로 그 질병으로서의 의미와 주제론적 특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암, 중풍, 치매와 같은 질병은 단순히 노년성 질병으로서의 소재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와 아이러니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암’은 일반적으로 은유화된 특징인 ‘빠른 전이 속도’와 ‘광포함’의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라는 시간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예정된 죽음’을 품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한다. 이 점은 노년기 ‘암’의 전이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 온전

\* 이 논문은 2012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대학교 조교수

하게 예정되어 있는 질병이라는 특징에서 연유된다.

‘중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육체의 상황이다. 특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육체’와 ‘아직도 왕성한 성욕’을 대비하여 보여 줌으로써 중풍이 지닌 욕구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육체와 욕구의 불협화음을 통한 생의 아이러니함까지 보여 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치매’는 육체적인 손상보다는 자아의 훼손과 인격 파괴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 준다. 치매는 질병 당사자의 감추어진 인격이 치매라는 상황을 통해 드러나듯,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감추어져 있던 위선과 허위의식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또 치매는 ‘어머니 역할’로만 어머니를 파악하던 자기 본위의 내면 심리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파악하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인생의 아이러니한 면을 드러내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독특한 병리적 상징으로 인해 노년기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 주며, 특히 인생의 아이러니함을 강하게 부각시켜 준다. 또한 박완서 노년소설의 발표 연대에 따라 노년을 대하는 작가 의식의 미묘한 변화가 각 ‘질병’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주제어 : 박완서, 노년기 질병, 암, 중풍, 치매, 아이러니, 허위의식

## 1. 서론

박완서는 1970년 등단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 온 작가이다. 특히 박완서의 후기 작품들은 노년의 삶을 다룬 작품들이 많

다. 이러한 작품 경향으로 인하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노년문제’ 역시 활발히 논의되어 왔었다.

박완서의 노년소설<sup>1)</sup>은 「저문 날의 삼화 1, 2, 3, 4, 5」 연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실제로 작가 박완서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작품에서 노년의 삶을 다루는 빈도가 증가하고, 노인의 감정과 애로 사항 등 현실적 문제를 예의 날카로운 관찰자적 시각과 풍자적 방법으로 파헤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노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연구 성과를 요약하자면 첫째로 박완서 소설이 노인의 시각으로 노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 둘째, 박완서 소설 속 노인문제 의식이 사회의식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밝힌 연구, 셋째, 노인의 심리와 제 문제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노인문제의 현실을 밝힌 연구 등이 있다.<sup>2)</sup>

- 1)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노년소설은 노년의 삶을 다룬 소설, 즉 삶의 적극적인 활동으로부터 은퇴했거나 물러나 있는 노인들의 세계를 다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가 대상 작품으로 하는 노년소설은 작가의 노년기에 창작된 작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주 인물이 노인 인물인 경우를 말한다.
- 2)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 하수정, 「노년의 삶과 박완서의 페미니즘」, 『문예미학』 제11호, 문예미학회, 2005.
  - 이수봉,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윤식, 「한국 문학 속의 노인성 문학」, 김윤식·김미현 엮음,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 전홍남, 「박완서 노년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 (II)」, 『국어문학』제 49집, 국어학회, 2010.
  - 김치수, 「깊고 통렬한 삶의 진실」, 『동서문학』, 동서문학사, 1999년 가을호, 1999. 8.
  -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변정화, 「시간, 체험 그리고 노년의 삶」,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 이재선, 「도시공간과 시학」, 『한국현대소설사 1945-1990』, 민음사, 2002, 288-293쪽.
  - 유남옥, 「풍자와 연민의 이중성」,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이와 같은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점도 드러난다. 우선 박완서 노년소설의 노인을 ‘문제’를 가진 존재로만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노인이 처한 부정적 상황과 노인을 둘러싼 갈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노인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 소설 속 노인들을 문제적 존재로 규정하고 강조함으로써 그 문제가 일어나고 진행되는 동안 노인의 감정이 변하는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으며, 또한 박완서 작품에 나타나는 노인의 긍정적 특성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sup>3)</sup>

또한 각 작품에서 제시하는 노인이 가진 특이성이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점은 본고의 논의 대상인 ‘노년 질병’의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박완서의 노년소설은 말년에 치매 증상을 앓았던 홀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모신 작가 특유의 체험적 소산 등으로 인해 노년 질병의 다양한 양상을 다룬 작품이 많다. 그런 점에서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등장하는 질병은 단순히 노인 질병의 역할 외의 다른 의미로 읽힐 가능성도 충분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노년소설에서의 질병은 노년기 삶의 양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노년의 삶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핵심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는 이러한 바탕에서 시작된다.

문학에서 ‘질병’에 관한 연구는 그 질병을 통해 작품 전체의 주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하는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박완서의 노년소설에서의 ‘질병’ 역시 단순한 소재적 차원을 떠나 보다 다양한 의미화를 통해 고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병의 의미화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특정 질병에 대한 시대

정영자, 「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나이 먹기」, 『여성연구논집』제16집, 2005.

3) 최정선,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문예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14, 8쪽.

적 의미를 고찰하는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러한 질병의 의미 분석은 매우 가치 있는 분석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대상에 집중된 논의에서는 예외적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질병의 의미는 특정 질병이 가진 시대적 의미가 아니라 질병이 특정한 하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년소설’과 각 질병과의 결합이 어떤 의미를 산출해 내는지가 주된 고찰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본고가 대상으로 할 질병은 노년소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암, 중풍, 치매의 세 가지이다. 이러한 질병이 작품의 주제적 역할을 하는 작품으로 암의 경우,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1991),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날 때」(1997), 「대범한 밥상」(2006)이 있고, 중풍의 경우로는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 「친절한 복희씨」(2006), 「저녁의 해후」(1984)가 있으며, 치매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는 「환각의 나비」(1995), 「포말의 집」(1976),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1978), 「해산 바가지」(1985), 「후남아 밥 먹어라」(2003) 등의 작품이 있다. 이 가운데 치매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 박완서 노년소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에서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각 질병의 증상들과 함께 그 치료 과정까지도 소상하게 서술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이 각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박완서 노년소설에서 각 질병이 매우 유의미한 요소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 작품들은 박완서의 노년소설이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의 작품(「포말의 집」,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에서부터 박완서의 말년과 같이 한 작품(「친절한 복희씨」, 「대범한 밥상」)에 이르기까지 그 작품 발표 연대의 편차가 크다. 이러한 시간의 편차에 따라 박완서의 ‘질병’ 인식의 태도 역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 역시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된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박완서의 각 작품에 나타나는 각각의 질병, 즉 ‘치매’, ‘암’, ‘중풍’ 등이 작품에서 어떠한 은유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박완서 노년소설의 주제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암과 시간의 아이러니

현대사회에서 ‘질병’은 삶과 인간적 조건의 손상이나 사회적 정치적 이상 현상의 비유나 상징으로서 원용되며, 타락한 정치 사회 또는 인간성과 단절된 문명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일반적으로 ‘암’의 은유는 ‘무자비함’, ‘고통 그 자체’를 넘어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공식으로 의미화된다. 암의 이러한 과멸적 의미는 우리 사회, 혹은 우리 문학 곳곳에 내재되어 있다. 즉 ‘암’은 글자 그대로 사회를 좀 먹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도려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질병 이상의 질병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또 ‘암’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극복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됨으로써 우리가 가진 ‘암’에 대한 평가는 ‘낭만’이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정적 의미 자체이다.<sup>4)</sup> 이런 점에서 ‘암’이라는 질병의 상징은 ‘광포함’, ‘빠른 속도’, ‘무질서함’등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암’이 노년이라는 특정한 시간대를 만났을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진다. 물론 노년소설에 등장하는 ‘암’ 역시 일단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생각이 우선시되기는 한다. 그래서 서사에 ‘암’이라는 질병이 제시될 때 임종을 앞둔 암 환자의 심리적 고통과 불안이 강조되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모습은 임종 쪽을 향해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본고의 대상 작품인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길고 재

4) 수잔 손탁,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95쪽.

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대범한 밥상」 역시 이러한 특징을 공통적으로 보여 준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1991)에서 화자는 남편의 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암의 치료를 위해 온갖 ‘부질없는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이면에서 오히려 ‘암’의 치명성, 즉 ‘암’은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폐암이 뇌로 전이되고 나서 그의 목숨은 무거운 추를 단 끈처럼 무서운 속도로 죽음의 나락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곧 죽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거짓 희망으로 그를 들볶았다. 병원 약과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지칠대로 지친 그에게 좋다는 한약 생약을 다 실험하려 들었다. 탕약·환약·인삼·영지·어성초·알로에·온갖 채소와 약초의 녹즙을 그의 입에 처넣으면서 꼭 고쳐놓고 말 테니 두고 보라고 장담을 하곤 했다.(「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p.279)<sup>5)</sup>

암과의 투병은 환자에게 전달 수 없는 고통이다. 수술과 항암 치료의 시간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탈진하여 살아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닌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수잔 손탁은 ‘암’의 이미지를 언급하며 암의 발병에서부터 우리는 ‘암세포들이 침략 한다’, ‘악성 종양이 천천히 자라날 때 우리 몸을 침략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방사선 요법, 화학 요법과 같이 군사적 분위기가 나는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암의 은유를 전쟁의 이미지로 특징화하였다고 설명한다.<sup>6)</sup> 즉 암과의 투병 과정은 생명과 항암요법의 전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에는 암의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5) 박완서 단편집 6,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6.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한다.

6) 수잔 손탁, 앞의 책 96-100쪽.

항암제 주사는 바늘이 꽂힐 때 한 번 따끔하고 마는 보통 주사하곤 달랐다. 꼬박 사흘 동안 입원해서 수도 없는 주사를 시간과 순서에 따라 번갈아 맞아야하는 거창한 주사였다. 하룻밤 사이에 맞아야 할 주사약만 해도 바퀴 달린 테이블에 하나 가득 넘쳤고, 그 각기 다르면서도 위세등등한 모습은 마치 하룻밤 동안에 쏘아대야 할 대포알을 방불케 했다. 아닌 게 아니라 투병은 곧 전쟁이었다. 항암제가 몸 안으로 흘러들면 환자는 곧 오장육부까지 쏘아낼 것처럼 심한 구역질을 시작했고, 항암제와 함께 빠른 속도로 주입되는 링거 때문에 변기를 줄창 대고 있어야 할 만큼 오줌 마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그놈의 대포알이 암을 명중시키기 전에 사람 먼저 잡을 모양이었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283-284쪽)

그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쬐는 거였다. 방사선 치료란 죽는 연습이었다.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도 유사했다.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 본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였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308쪽)

이렇게 ‘암’에 사용되는 용어가 전쟁 용어와 유사하다는 것은 ‘암’의 치료 과정이 공포스럽다는 의미 외에도 암의 전이 과정이 마치 전쟁의 속도전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암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암’의 투병 과정은 미처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극도의 고통을 견디다가 급격히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즉 ‘암’의 상징성 자체가 ‘속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나 다른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암’은 그에 대처하기 힘들 만큼 돌진적인 이미지로 표상화된다.

하지만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등장하는 ‘암’은 암에 걸린 대상자가 노

년이라는 특징과 함께 암의 전이가 비교적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암의 전이 과정 동안 암에 걸린 당사자가 그 마지막을 ‘품위’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작품의 초점이 가 있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시간의 아까움을 느끼고, 그 아까운 시간에 어떻게 독창적으로 살아 있음을 누리고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건 인간만의 비장한 업이 아닐까. 그가 선택한 인간다운 최선은 가장 아까운 시간을 보통처럼 구는 거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에게 순간 순간 열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열 달이나 계속됐다.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302쪽)

남편의 마지막 모습에서 느껴지는 ‘품위’를 통해 ‘나’는 남편의 죽음을 이미 ‘평화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슬픔이 있는 기쁨’으로 미화시킬 수 있게 된다. ‘나’가 남편의 죽음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남기고 가는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또한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이 보여준 ‘의연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암’이 지닌 이러한 특징은 박완서의 다른 작품인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1997)에서도 등장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질병 역시 ‘암’이다.

위암 수술을 했지만 회복해보니 암이 모든 장기로 번져 육 개월을 못 넘길 거라고 했을 때 맞벌이하는 올케한테 모셔가라는 건 말을 안 꺼내니 만도 못할 게 뻔해서 내가 모신 거였다(중략). 암환자의 말기가 거의 다 그렇다지만 어머니도 숨을 거두시는 날까지 의식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명료했다. 그러나 뒤를 가리지 못했다. 수술 후 어떻게 된 게 항문의 괄약근이 고무줄이 빠진 것처럼 열린 채 오르라드는 작용을 못하

니 아무리 깔끔한 어머니도 속수무책이었다. 내가 떠맡고 싶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똥구멍이었다. 생판 남이 어머니의 똥구멍을 진저리를 치며 구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건 효도 따위보다 훨씬 진실하고 씩씩한 분노였다. 하필 항문의 고무줄이 빠질 건 뉘였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그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을까. 나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대가로라도 그 치욕을 다소나마 가려주는 일을 맡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28-129쪽<sup>7)</sup>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는 암의 증상이나 치료 과정보다 암의 병후 증상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어머니는 위암 수술 후의 ‘항문의 괄약근이 고무줄이 빠진 것처럼 열린 채 오므라드는 작용을 못하는’ 병후증상을 맞는데 이것은 어머니와 화자인 딸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

어머니의 이러한 병후 증상은 어머니의 ‘지나치다 싶을 만큼 명료한 의식’과의 대비를 통해서 더욱 고통스럽게 드러난다. 특히 어머니는 평소에도 육체가 정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생의 마지막 삶의 목표를 ‘방귀를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싶다’로 정하고 있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어머니가 말하는 ‘방귀’는 사람의 체면 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어머니는 ‘방귀’가 당신의 자존심을 유지해 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인물이다. 그런 어머니가 ‘방귀’보다 더 한 경우인 괄약근이 열린 채 다물 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화자인 ‘나’는 생의 난해한 아이러니에 참을 수 없는 분노까지 느낀다.

가족들에게 노령의 말기 암환자의 간병과 부양은 ‘길고 재미없는 영화’로 형상화될 만큼 지루함의 시간이다.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지겹고 귀찮고 재미없다는 의미인데, ‘길고 재미없는 영화’라는 비유는

7) 박완서 단편집6, 『그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6, 128-129쪽. 이후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고 페이지만 명기한다.

바로 노년기 암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다른 질병과는 달리 ‘암’은 죽음을 전제로 한 질병이라는 점에서 가족들이 환자의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 점에서 ‘암’이 지닌 특징인 ‘몰아치는 속도’라는 부분이 빠진 노년기의 암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여유있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의미화된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서 의미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죽음’을 매개로 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화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혼인 하던 날부터 어머니를 무시했고, 그저 명목상의 조강지처였을 뿐 당신의 소실에게만 사랑을 주며 살아왔던 인물이다. 이런 아버지는 어머니 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철없는 행동에 점차 실망감과 분노가 증폭된 ‘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찾아가 어머니의 상태를 알려 준다.

그날 밤이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중략) 어머니의 전화 바꿨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도 뜻밖인지 약간 어눌하고 떨리는 소리였다. 저쪽에선 아직도 짓눌린 딸꾹질 같은 소리만 들렸다. 전화 바꿨어요. 전 괜찮아요. 많이 나왔어요. 참다못해 어머니 혼자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도 한참 만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중략) 나중에 보니까 통화가 끝난 어머니도 아픈 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통화를 생각하고 웃음을 건잡지 못했다. 어머니는 의사가 예언한 생존기간도 미처 못 채우고 돌아가셨지만 칠십에 처음 들은 사랑의 고백 때문에 그 동안을 즐겁게 보내셨다.(「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42-143쪽)

이렇게 어머니는 나이 칠십에 처음 들은 사랑 고백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행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어머니의 똥을 치우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바람은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

은 어머니의 정신과는 상관없는 육체의 반란을 어머니가 자존심으로 대항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또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자신의 모습은 자식들의 어머니도, 한 집안의 며느리도, 이미 육체적으로 병든 늙은이도 아닌 고운 ‘여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원래 깔끔하고 자존심 센 어머니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남편에게 깨끗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다는 여성 특유의 자존심이 어머니를 ‘암’의 고통 속에서도 고고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지키게 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에 쓰인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1991),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1997)가 노년의 암 환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간병하는 아내나 딸이 서술자가 되어 환자가 의연하게 죽음을 맞는 태도를 서술한 것이라면, 「대범한 밥상」(2006)은 노년의 암 환자 자신이 서술자가 됨으로써 ‘죽음’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대범한 밥상」에 등장하는 질병 역시 ‘암’이다. 이 작품에서의 화자인 ‘나’와 남편은 모두 암 환자로 등장한다. 남편이 먼저 췌장암으로 죽고, 삼 년 후 부인인 ‘나’역시 유방암의 진단을 받는다.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암 환자들의 질환 고통과 치료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까지 남겨진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내시경이다, 엠 알 이이다, 힘든 검사로 초주검을 만들어 놓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살날이 앞으로 석 달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남편이 먼저 저세상으로 간지 삼년 만이었다.(중략) 나는 사십대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근래에 몸이 갑자기 쇠약해져서 검사를 받은 결과 여러 장기로 전이가 돼 삼 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그이는 멀

8) 이 작품은 박완서의 마지막 작품집인 『친절한 복희씨』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작품 발표 연대에서 알 수 있듯 박완서의 말년기 작품이다. 즉 고령화된 박완서의 죽음에 대한 입장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짱하던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 췌장암으로 밝혀져 삼사 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했다. (중략) 지금 와서 그걸 알아서 무엇에 쓸까마는 돈의 치사한 맛도 뜨거운 맛도 모른다는 게 사는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죽는데 있어서까지 중대한 결격사유처럼 느껴지면서 경실이가 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대범한 밥상』, 189-197쪽)<sup>9)</sup>

『대범한 밥상』은 죽음을 눈앞에 둔 ‘나’가 사둔영감과 기묘한 동거를 한다고 친구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그 동안 짐짓 무시했던 친구 경실을 찾아가 그간의 오해를 풀고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암’진단 후 시한부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그간의 인생의 가치관이 재조명된다는 점이다. 남은 재산을 자식에게 분배하는 문제를 가장 큰 과제로 생각했던 화자에게 친구 경실이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범한 밥상』에서 시한부의 시간을 ‘지루하다’고 표현할 만큼 죽음에 대한 화자의 담담한 태도는 광포한 속도가 아니라 완만한 진행성을 지니는 노년기 ‘암’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박완서의 노년소설 중 ‘암’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의 특징은 ‘노년기의 암’은 기존의 ‘암’의 특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광폭함’이나 ‘저돌성’과는 달리 ‘지루한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암’이라는 속도와 노년이라는 시간의 아이러니한 결합을 통해 ‘예정된 죽음’을 준비하는 노년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 준다.

이것은 특히 ‘암’이 다른 노년의 질병인 중풍이나 치매가 온전하지 못한 육체나 정신으로 긴 시간을 견디어 내야 하는 질병인 것에 비해 심각한 고통 속에 있기는 하지만 의연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육체와 정신의 손상도가 다른 노년의 질병에 비해 적다는 특징에 따른 것이기도 하

9) 박완서 문학전집 7,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6, 189-197쪽.

다. 또한 ‘암’은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자녀 혹은 배우자나 오해에 쌓여 있던 친구와 극적인 화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특징 또한 보여 준다.

### 3. 중풍과 모순된 육체의 불협화음

중풍은 노령 장애 발생 원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다. 중풍의 경우 생존하더라도 기능 상태가 심각한 장애인으로 살아 가게 된다. 중풍으로 인해 갑자기 장애인이 된 노년 인물은 노령에 장애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특징을 보인다.<sup>10)</sup> 중풍을 뜻하는 현대의학의 용어로는 뇌졸중(腦卒中)이 대표적이다.<sup>11)</sup> 중풍은 일단 발생하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기며 신체 및 인지기능의 손상은 물론 일상생활의 저하를 가져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즉 중풍은 질병 자체보다 질병 발생 후의 후유 장애로 인한 마비증상이 주요한 특징으로 작용한다.

박완서의 노년소설 중 중풍 노인들이 등장하는 작품은 「저녁의 해후」(1984),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 「친절한 복희씨」(2006) 등이 있다. 이 작품 모두 중풍 노인은 남성 노인이고 주 수발자는 배우자이거나 간병인인 여성노인이다.

먼저 「저녁의 해후」(1984),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는 박완서의 노년소설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작품으로, 이들 작품에서 ‘중풍’은 중풍 자체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수발자 없이는 움직이지

10) 문수경, 「중풍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가족지지와 선행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제27권 3호, 2007, 563-578쪽.

11) 이인수, 「뇌졸중 노인을 위한 집단상담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12권 2호, 2001, 209-224쪽.

못하는 후유 장애의 특성이 주된 질병의 의미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친절한 복희씨」(2006)는 박완서 노년소설의 특징적인 면들을 잘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중풍’이라는 질병이 가진 독특한 특징까지도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친절한 복희씨」의 남편은 중풍에 걸려 오른쪽 반신이 흐느적대고 제 입안의 침도 잘 수습하지 못한다. 뭐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복희씨는 자식 손자들한테서 냄새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남편의 대소변 수발까지도 정성을 다한다.

어차피 속옷을 손으로 빼는 것도 그만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밑을 씻어주는 게 한결 손이 덜 갔다. 그가 그걸 즐기지만 않았어도 그가 죽는 날까지든, 내 수족이 성한 날까지든, 마냥 그렇게 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이는 내가 해주는 뒷물을 처음에는 약간 미안해하는 듯 하더니 차츰 즐기기 시작한다는 게 느껴졌다. 발음이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그가 내지른 소리는 아유 시원해, 아아 시원타, 정도였을 것이다. 너무 시원해서 그랬던가, 차츰 발음하기를 포기하고 신음 같은 흥얼거림으로 변했다. 나는 그 흥얼거림에서 성적인 김새를 쫓았다.(「친절한 복희씨」, 234쪽)<sup>12)</sup>

복희와 남편의 관계는 처음부터 성적인 관계가 우선된 것이었다. 시골에서 버스 차장이 되고 싶어 서울로 올라와 방산시장에서 일하던 복희가 상처(喪妻)한 가게 주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가게 주인과 결혼하게 된 것이다. 어린 처녀를 강간할 만큼 복희의 남편은 원래 성욕이 강한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남편의 짐승 같은 성욕은 중풍에 걸려 육체가 흐느적대면서도 여전히 왕성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풍이라는 질병이 가진 아이러니한 속성을 보여 준다. 이 점은 또한 복희가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

12) 박완서 문학전집 7,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6, 234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기한다.

끼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약사가 내민 종이엔 낫익은 그의 뻘뻘한 왼손 솜씨로 그린 ‘정력제비아그라’그런 글씨들이 징그러운 별레처럼 기어 다니고 있었다. “그랬더니 오늘은 또 종이를 달래시더니 마누라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 좀 봐달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좀 뵙자고, 할머니한테 직접 드릴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세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나름의 고충은 있으시겠지만 참으셔야지 어찌겠어요.” (『친절한 복희씨』, 249쪽)

약사에게 비아그라를 달라고 떼쓰는 남편과 복희를 성적 쾌감만을 추구하는 여자로 취급하는 약사의 태도에 복희는 치욕감을 느낀다. 부끄러움에 몸서리치며 약국을 뛰쳐나오면서 복희는 남편에게 살의까지를 느끼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살의는 복희의 전 생애에 걸쳐 쌓인 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 자신을 강간하여 꽃다운 청춘을 주저앉힌 남편에 대한 복수심, 남편의 요구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강간당한 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던 세월의 굴욕감과 수치심에 대한 복수심, 늘그막에 병에 걸려서까지 제어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성욕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욕보인 것에 대한 복수심 등이 뒤섞여 복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친절한 복희씨』는 비록 중풍 질환을 겪고 있는 남성 노인이라도 성적인 욕망은 다른 건강한 노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리고 중풍은 이러한 성적 욕구가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수발자인 배우자에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게 만든다. 또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병든 육체와 상반되는 성적 욕구가 대비됨으로써 노년의 삶을 더욱 비루하게 보이게 한다.

복희의 남편이 앓고 있는 중풍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육체’와 ‘아직도 왕성한 성욕’을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육체와 정신의 불

협화음이라는 중풍 특유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생의 아이러니함까지 보여 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완서의 또 다른 작품인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1984)<sup>13)</sup>의 수발자인 간병인 ‘성남댁’은 비록 계약직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며느리의 지시대로 중풍에 걸린 ‘영감님’을 지극 정성으로 봉양한다. 시장에서 노점을 하고 있던 ‘성남댁’은 진태 엄마의 꼬드김에 빠져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영감님의 재취로 들어온다. 영감님의 몸에 다시 마비 증세가 오자 영감님과 성남댁은 아들네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이후 진태 엄마는 시어머니를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성남댁’이라고 부르며 완전히 무시한다. 성남댁에게뿐만 아니라 병든 시아버지에게까지 용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매끼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구박을 일삼는다. 그러던 진태 엄마가 시아버지가 죽자 성남댁을 골방에 밀어 넣고 그동안 혼자서 병수발을 다한 듯이 호들갑을 떨고 시아버지의 죽음을 극성스럽게 애도한다.

“진태 엄마한테 들은 얘긴데, 마나님이 보통내기가 아니었다더라. 대소변을 받아내게 되고부터 저 아니면 누가 그 노릇하랴 싶었던지 제법 세도가 당당했대. 또 한 번 싸고 나면 방으로 물을 몇 대야씩 가져오게 했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거두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살그머니 들여야 보면, 글썄 영감님 아랫도리를 마냥 주무르고 있더라지 뭐니?”(중략) “마나님 걸음걸이 보면 모르냐? 이렇게 엉덩이를 맹렬히 돌리면서 걷는 걸음걸이 말야. 이렇게” (중략) “그 노인도 살만큼 사셨어. 말년에 한번 화끈하게 살아 보셨겠다. 아까울 것 하나도 없어” (「지 알고 내 알고 하늘이 알건만」, 196-198쪽)<sup>14)</sup>

13) 「지알고 내알고 하늘이 알건만」은 박완서 작품의 익숙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 여성의 허위의식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14) 박완서 문학전집 4,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06. 96-198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기한다.

이렇게 진태 엄마 친구들의 수군대는 말에 따르면 ‘성남댁’은 성욕이 넘치는 여자이며 이런 ‘성남댁’과 중풍으로 세상을 떠난 ‘영감님’의 관계는 성적인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군거림은 모두 진태 엄마의 모략이지만 이러한 수군거림의 내면에는 중풍 환자는 몸이 불편할 뿐 성욕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생각이 바탕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바로 앞서 「친절한 복희씨」에서 보여 주었던 중풍의 특징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완서의 또 다른 노년소설인 「저녁의 해후」(1984)에 나타난 중풍노인의 모습은 편마비 환자의 모습으로 배우자 ‘나’의 수발을 받고 있다.

남편이 반신불수라는 건 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곁으로 드러났다. 뇌일혈로 쓰러졌다가 회복되면서 왼쪽이 마비될 초기만 해도 움직일 때가 아니면 그의 불구를 눈치챌 수 없었다(중략). 남편은 한쪽이 불수가 되고부터 기억력도 필라멘트가 간땡간땡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전구처럼 깜박인다.(「저녁의 해후」, 86-87쪽) 15)

‘나’에게 반신불수가 된 남편은 ‘한물 간 구닥다리 물건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 넣을 만한 기운이 남아 있지 않은’무의미한 존재로 파악된다. 남편의 반쪽은 이미 ‘생명 없는 무기질로 접붙여 놓은 것 같은 어색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또 ‘웃음 뿐 아니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의 입에선 한쪽으로 흘러내리는’죽은 몸이라고 ‘나’는 남편을 파악한다. 남편의 수발에 지친 나는 우연히 조카의 선보는 자리에 따라나갔다가 호수돈 여고시절 중매로 만나 혼담이 오고갔던 조 노인과 재회한다.

아마 개중 때였을 거예요. 그 한창때가. 그때는 웬놈의 불뎡이 같은 게 허구한 날 어찌나 지랄같이 치미는지 그렇게 식혀주지 않으면 꼭 뿔

15) 박완서 문학전집 4,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06, 86-87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기한다.

일 저지르고 말 것 같았거든요. 용광로 같은 시절이었죠. (중략) 나는 그의 용광로란 소리에 성욕을 연상했고, 자신에게 아직도 그런 외설의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게 혐오스러워서 짐짓 냉담하게 바깥만 내다봤다. (『저녁의 해후』, 105쪽)

집에 홀로 누워 있는 남편을 잠시 잊은 채, 나는 그 하루를 조 노인과 동행하며 과거의 추억들을 되새김질한다. 그리고 그 추억이 성적인 상상까지 가능한 젊은 시절의 설렘임의 연속성으로 기대했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대하게 된 조 노인은 ‘한눈에 틀니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빛나는 앞니와 분홍빛이 부자연스러운 잇몸’을 가진 추하게 늙은 늙은이일 뿐이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는다.

여고 시절의 ‘나’와 현재의 ‘나’가 다르듯 조 노인 또한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만 조 노인은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 속에 자기를 그대로 위치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조 노인의 이러한 태도에 염증을 느끼며 남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생각한다. 즉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히 살아 있던 과거의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반쪽로나마’ 남아 있는 남편의 현재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허둥지둥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슴푸레 어둡고, 창문은 열려 있고, 남편은 요도 안 깔고 모로 누워서 곤히 잠자고 있었다. 나는 불 먼저 켰다. 남편은 꿈쩍도 안 했다. 성한 쪽을 아래로 하고 모로 누운 남편은 영락없이 죽은 사람 같았다. 나는 황급히 남편의 몸을 만져 보았다. 보통 때도 성한 쪽보다 온기가 덜한 불편한 쪽은 밤바람에 섬뜩하도록 차게 식어 있었지만 성한 쪽은 따뜻했고 숨소리도 평온했다. 나는 요를 깔고 그를 안아다 눕히고 포근한 명주 이불로 감쌌다. 그래도 불편한 쪽의 죽음이 온몸으로 퍼질까 봐 불안해서 그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평소엔 이불 속에서 살만 잠깐 스쳐도 질겁을 하게 싫던 불수의 반신을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정성들여 주물렀다. 그 반신이나마 있음으로 해서 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눈물겨웠다. (『저녁의 해후』, 119-200쪽)

조 노인과의 만남 이후 ‘나’에게 있어 반쪽짜리 남편은 움직이지 않는 반쪽의 의미가 아니라 부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며, 살아 있음에 대한 애뜻함으로 인식되게 된다. 중풍으로 남편의 삶은 이미 정지되어 회복될 수 없는 응고 상태지만 ‘나’에겐 그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느껴지게 된다. 즉 ‘나’의 삶을 억누른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죽은 반쪽에 연연하던 ‘나’의 모습에서 ‘나’와 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남겨진 반쪽에 감사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저녁의 해후」는 앞서 살펴본 박완서의 다른 작품들에서 중풍에 걸린 남성 노인이 병수발을 하는 배우자(혹은 배우자 역할을 하는 간병인)를 성적인 대상으로 여긴다는<sup>16)</sup> 공통점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 하지만 남편의 반신불수에 대한 나의 인식이 ‘죽은 몸’이라는 것에서 조 노인과의 만남 이후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것으로 변화된 점, 즉 과거에 집착하는 조 노인을 통해 내가 남편에게 가졌던 생각 역시 과거 온전한 모습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나 하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서의 두 작품이 ‘중풍’이라는 질병이 움직이지 않는 육체와 왕성한 성욕의 대비를 통해 생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이 작품은 중풍 환자의 육체 속에 죽은 몸과 살아 있는 몸이 공존한다는 자각을 통해 생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박완서의 노년소설 중 ‘중풍’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의 특징은 움직이지 않음(육체, 죽은 몸)과 움직임(욕구, 살아 있는 몸)의 대비를 통해 생의 아이러니한 측면을 드러내는 데 있다. 특히 움직이지 않는 현재의 육체보다 움직이는 과거의 욕구를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노년기의 살아 있는 욕구가 삶을 더욱 비루하게 보이게 하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중풍의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수발자의 어려움이 강조되고 있다. 이

16) 중풍에 걸린 당사자에 의해서이건 주위의 시선에 의해서이건

때 수발자의 어려움 역시 중풍 환자의 육체적 움직임을 보필한다는 측면에서 육체적 고단함에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 4. 치매와 허위의식의 폭로

치매란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으로 생기는 증후군이며 이로 인한 기억력, 사고력, 이해력, 계산 능력, 학습 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대뇌피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18)</sup> 치매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노인성 치매라고 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이다.

치매의 주 증상 중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은 기억 장애이다. 이것은 모든 치매에서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며, 기억 장애로 인하여 치매 노인들은 의사소통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약속 시간이나 사람의 이름, 주거지 등을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sup>19)</sup>

본고에서 주목하는 치매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는 성격 변화이다. 치매 발병으로 이전에 타인을 배려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활동적이던 사람이 냉담해지고, 활기가 없어지며, 발병 이전보다 자주 화를 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불안해하거나 우울해지고 완고해지는 등 부적절한 성격 행동이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치매 증상으로 점차 나타나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성격 변화 역시 소설의 많은 소재가 되고 있고, 특히 박완서의 노년소설에는 치매의 여러 증상들 중 이러한 성격

17) 이 부분은 수발자가 성육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는 측면까지 포함된다.

18) 한경희 외 9명, 『노인성 치매 연구』, 교문사, 2002, 31쪽.

19) 송영희, 「중년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5쪽.

20) 권중돈 외 5명, 『치매와 가족』, 2002, 335-341쪽.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에는 다른 질병들보다 유난히 ‘치매’가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작가의 실제 경험과도 관련이 깊지만 무엇보다 ‘치매’라는 질병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숨은 메시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박완서 노년소설에서 보여 주는 치매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서술자가 치매 노인의 며느리인 경우와 딸인 경우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서술자가 며느리인 작품에서는 치매 환자가 겪는 고통이나 두려움, 육체적 심리적 위축과 상실감보다는 치매 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불편과 희생에 초점이 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작품으로 「포말의 집」(1976), 「집보기는 끝났다」(1978), 「해산바가지」(1985) 등이 있다. 또한 이 유형의 작품들은 작가 박완서가 노년에 접어들기 전,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노년소설이 발표되기 전의 작품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서술자가 딸인 경우는 치매 상태를 지켜보는 딸의 안타까움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한 어머니의 힘겨운 생애에 대한 회한이 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작품으로 「환각의 나비」(1995), 「후남아 밥 먹어라」(2003)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앞서의 유형과는 달리 박완서의 노년소설이 본격화되었을 때의 작품이며, 딸이 서술자로 등장함으로써 치매 노인을 보살피는 수발자의 어려움보다는 치매 노인의 변화에 더욱 초점이 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작품들에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서술자 며느리의 상황은 주로 남편(아들)이 부재하거나 부양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치매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정서적 심리적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 상태에서 며느리가 가지는 치매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주로 ‘치매’의 증상으로 야기되는 시어머

니의 행동과 관련된 혐오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치매’라는 질병의 초점은 치매의 증상이 얼마나 서술자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가에 있다.

에미야, 나 아침 먹었냐 안 먹었냐? 에미야 나 머리 빗을까 말까? 에미야 전깃불 끌까 말까? 수돗물이 넘치는데 잠글까 말까? 온종일 이런 백치 같은 질문을 하면서 내 뒤를 쫓아다녔다. (『포말의 집』, 68쪽)<sup>21)</sup>

↓

아이들이 새록새록 재롱을 부리듯이 시어머니는 새록새록 새 노망을 부렸다. 어느 날, 북엇국을 끓이려고 북어를 찾았으나 한 캐를 사다 찬장에 넣어놓은 지가 엇그젠데 온데 간데가 없었다.(중략) 외출하려는데 좀 전까지도 거기 있던 구두가 없어졌다.(중략) 돌아간 시아버지의 검정 세루 두루마기 사이에서 동석이 교복을 찾아냈다. (『포말의 집』, 69-70 쪽)

↓

시어머니는 욕실로 들어가 양변기 속에 고여 있는 물로 세수를 한다. 혼자서 투덜대며 세수를 한다. “물이 또 다 식었잖아. 세숫물을 떠놓았으면 떠 놓았습시다 고 한마디 해줘야 식기 전에 씻지. 아유 쫓쫓, 신식 며느리 쌀쌀맞은 것..... (중략)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옷을 순순히 갈아 입은 적이 없다(중략) 노인의 나체를 보는 건 참 싫은 일이다. 더군다나 살갓에 닿는 일은 그 분이 그걸 즐기기 때문에 더욱 싫다. (『포말의 집』, 70-71쪽)

↓

오밤중에 일어나 이 방 저 방의 문을 두드리며 다니는 거였다. 애간장을 끓는 것 같은 슬프고 애달픈 소리로, “애야, 문 좀 열어다우. 처음엔 밤에 급한 병환이라도 난 줄 알고 급히 문을 열었더니 머리를 풀어헤친 채 알몸으로 떨고 서서 ”너희들은 갑갑해서 어떻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자냐? “ 하는 거였다. 그 후부터는 아무리 그 소리가 소름이 끼쳐도 아예 못 들은 척했다. (『포말의 집』, 83쪽)

21) 박완서 문학전집 2,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68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기한다.

이렇게 「포말의 집」에는 심화되어 나타나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자세하게 보여 준다. 물론 이러한 증상의 나열은 서술자 며느리의 입장에서 치매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이러한 치매 증상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중심에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절규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서술자인 며느리는 가족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해 버린다.

시어머니의 야간 불면증 현상에 시달림을 당하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수면제를 처방해 오나 시어머니 대신 자신이 약을 복용하고 깊은 잠을 자 버린다. 잠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이 사는 굳건한 ‘아파트’를 방울방울 불면 꺼질 듯한 포말의 집으로 느낀다. 이렇게 서술자 며느리의 의식의 중심에는 바로 포말처럼 위태로운 가족 관계가 있다. 굳건하다고 생각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실은 ‘포말’처럼 한 순간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포말의 집’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지금까지 ‘굳건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사실은 허위의식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치매’는 기존의 노년소설 분석에서 주장하듯 ‘가족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허위의식을 드러나게 해 주는 매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1978)에서 이 점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작품의 치매 노인인 시어머니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지병으로 앓고 있으면서 노망기까지 있다. 이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식탐과 허기증이다.

“애야, 어멈아. 밥 다우. 배고파 주겠다. 뱃속에서 무두질을 한다. 해가 저만큼이나 올라오도록 시어멈 점심 줄 생각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게야?”(중략) 노망기가 좀 더 심해지져서 유난히 잡숫는 것만 밝히신다.(중략) 시어머님은 투정은 투정대로 하시면서도 맹렬한 식욕은 조금

도 줄지 않으셔서 상에 올린 거면 모조리 훔듯이 다 집수셨다. 그러고도 곧 배고프다고 악쓰시고 욱하고 하셨다.(「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340쪽)<sup>22)</sup>

나는 어머니가 손으로 생선을 집어서 새하얀 틀니로 뼈까지 오지직 오지직 씹어서 상 귀퉁이에 뒹뒹 뻘고, 비린 손가락을 쪽쪽 빠시는 걸 지켜보며,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자리 잡은 그분에 대한 미움을 의식했다.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잖고 고상하고 도덕적인 것에 짓눌려 부피 작은 것이었지만 압축공기처럼 다부지고 위협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342쪽)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에 대한 학대라고 할 수 있는데, ‘효’로 가장했던 나의 위선이 깨지면서 ‘나’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에게 지능적인 학대를 시작한다. 그것은 식탐과 허기증의 증상을 가진 치매 시어머니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에 해로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적극적 방임의 노인 학대를 시도한<sup>23)</sup> 것이라 볼 수 있다.

남편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행되는 ‘나’의 이러한 학대는 지금까지 화평한 모습으로 포장된 ‘집’의 겉껍질을 찢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치매’의 중요한 증상인 ‘인격 변화’ 증상과도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치매’로 인해 변화한 인격이 진짜 인격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까지 ‘건고함’, ‘화평함’으로 둘러 싸여 있던 가족 관계나 치매 전 상태의 인격은 ‘위장된 인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 보기는 그렇게 끝났다」에서 포장된 ‘가족 관계’의 겉껍질을 찢어내는 과정은 ‘치매’를 통해 기존의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까발려지

22) 박완서 문학전집 2, 『배반의 여름』, 문학동네, 2006, 340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기한다.

23) 모선희 외 3인,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225쪽.

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닌 ‘치매’에 대한 불안감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언제 생경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우리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치매를 통한 인격 변화나 위선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작품으로 『해산 바가지』(1985)가 있다. 이 작품의 시어머니 역시 치매를 앓으며 ‘나’와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시어머니의 노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타인의 눈에 착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은 ‘나’는 시어머니를 몰래 학대한 후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 때문에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한다.

그러나 내 눈엔 그분의 그런 것이 평범한 망령으로 보이지 않았다. 벌어먹을 프로이트 때문인지 성적인 연상을 하고 내 속에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었다. 그분은 점점 더 자주 우리 방으로 야행을 하였다. 당신 방으로 아들을 불러냈다. “아범, 추워 죽겠어. 정말이야. 냉골이라니까. 늙은이 얼어 죽는 꼴 안 보려면 한번만 와서 만져봐.” “아범, 나 배고파 죽겠어. 어머님이 나를 굶겨. 정말이야, 배가 등갓에 붙었어. 와서 한 번만 만져 보라니까.” 이렇게 새록새록 구실을 만들어냈다. 구실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망령 노릇도 새록새록 새로워졌다. (『해산바가지』, 238쪽)<sup>24)</sup>

이 작품에는 ‘착한 며느리’로 비춰지고 싶은 나의 행위가 위선이라는 것이 탄로 나면서 ‘나’는 또한 나의 본성과는 다른 모습인 포악함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위선적인’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듯이 ‘위선’이 드러난 순간의 ‘포악함’역시 진정한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의 포악함이 극에 이르자 견디다 못한 나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

24) 박완서 문학전집 4, 『저녁의 해후』, 문학동네, 2006, 238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기한다.

길 시골 요양원을 알아보게 된다. 그러던 중 ‘나’가 우연히 발견한 ‘해산 바가지’를 통해 ‘나’는 과거 시어머니의 극진한 해산 구완을 떠올리고 나의 위선과 포악함을 반성하게 된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 그 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해산 바가지』, 246쪽)

시어머니가 한때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아름다운 영혼이 깃들었던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복용했던 신경안정제도 필요 없게 되고 위선을 떨지 않으면서 시어머니의 노후를 공경할 수 있게 되었다. 속상할 때는 소리도 지르고, 목욕할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적이고 진솔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떠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중략)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서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해산 바가지』, 247쪽)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도 시어머니는 ‘나’의 변화를 인간적인 본능으로 알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가 평화롭고 순결한 얼굴로 임종을 하신 것은 바로 ‘나’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솔한 사랑으로 시어머니와 진정한 화해를 하고, 기쁨과 평화의 삶에 대한 믿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는 바로 앞서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 주었던 인격 변화의 막연한 ‘불안감’을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산 바가지」(1985)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박완서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발표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노년소설<sup>25)</sup>과 초기 작품<sup>26)</sup>의 중간에 위치한 작품으로 「해산 바가지」의 이러한 화해의 방식 이후 박완서의 치매를 소재로 한 노년소설은 서술자(수발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치매 노인에 대한 이해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 「해산 바가지」는 작가의 치매 인식 변화에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의 두 번째 유형인 딸이 서술자로 등장하는 작품에는 「환각의 나비」(1995), 「후남아 밥 먹어라」(2003)가 있다. 「후남아 밥 먹어라」는 남동생을 보라는 의도로 ‘후남’이라고 불린 셋째 딸이 미국으로 출가했지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개되는 이야기다.

후남이는 가난 때문에 그녀로 하여금 학교를 포기하게 했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치매에 걸려 늙은 이모와 단둘이 살고 있는 어머니는 후남이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런 어머니의 상태를 보면서 그녀는 착잡한 마음이 된다. 그러다 집 근처를 걷고 있던 그때 집 쪽에서 “후남아, 밥 먹어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는 그동안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 섭섭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저만치 짧게 커트한 백발을 휘날리며 그녀를 부르며 달려오  
고 있었다. 아아 저 소리. 생전 녹슬 것 같지 않게 새되고 억척스러운 저

25)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1987년 「저문날의 삽화 1, 2, 3, 4, 5」를 그 기점으로 한다.

26) 여기에서는 본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포말의 집」(1984),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1987)의 경우를 말한다.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얼마나 지겨워했던가. 밖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나 동무 집에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온 동네를 악을 악을 쓰면서 찾아다니는 저 목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어디론지 숨고 싶었다.(『후남아 밥 먹어라』, 316쪽)<sup>27)</sup>

여기에서 후남이 어머니에게 바라는 것은 ‘밥’으로 상징되는 ‘어머니’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딸의 입장에서 서술한 이러한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치매 증상은 ‘인격의 변화(파괴)’이다. 이 인격의 변화 역시 어머니가 행하는 이상 행동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등 ‘우리 엄마 같지 않은’ 낯설음을 통해서 인지된다. 또한 딸의 입장에서 이러한 ‘낯설음’을 극복하거나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된 듯 기뻐하는 것 역시 ‘우리 엄마다움’을 회복했을 때이다.

이러한 특징은 『환각의 나비』(1995)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은 『후남아 밥 먹어라』(2003)보다 시기적으로는 더 앞선 작품이지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정체성 탐구라는 부분에서는 더 심도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환각의 나비』의 치매 노인은 결혼한 큰 딸과 같이 사는 친정어머니이다. 서술자 영주의 어머니는 치매 발병 후 과천에 사는 아들집을 그리워하면서 배회 증세의 가출을 시작한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아들집에 있게도 해 봤지만 어머니의 증세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은’ 심정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아들집에 머물도록 한 조치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배회 행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머니의 이러한 증상은 치매 노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양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만드는 증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치매 노인은 공간적 기억 손상이 있어 길 찾는 능력이 감소되면서 배회행위를 일으키고 결국은 부양자와 결별하게 되는 등 최악의 결과를

27) 박완서 문학전집 7, 『그리움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6, 316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기한다.

가져오게 된다.

참다못해 영주가 먼저 울케하고 직접 담판을 해서 어머니를 모셔가도록 했다 (중략). 어머니의 탈출시도가 계속되자 영탁이네 현관문엔 자물쇠가 하나 더 달리게 되었다.(중략) 며칠 만에 자물쇠가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어머니를 방안에만 계시도록 하기 위한 방 자물쇠였다. 집 밖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걸 납득하고 난 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대며 온종일 집안의 문이란 문을 있는 대로 열어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니 어찌겠느냐는 것이었다. (중략) 어머니는 벽에 걸린 거울 속의 늙은이를 노려보면서 “땀은 뉘시우? 응? 저리 비켜요. 썩 물러나지 못할까” 연방 발을 구르고 있었다. (『환각의 나비』, 69-71쪽)<sup>28)</sup>

어머니의 배회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들네에서는 이렇게 감금을 단행한다. 하지만 서술자인 딸은 치매 걸린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이런 결정에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서 서술자인 딸 영주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인격 변화’증상이다. 즉 어머니의 정체성 상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의 정체성 상실은 「후남아 밥 먹어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본래적 모습의 상실이라는 의미보다는 가족 공동체의 중심에 서서 가족의 ‘안전판’ 역할을 해 주던 어머니의 역할의 상실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런 점에서 딸이 기억하는 어머니 역시 한 자아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존재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딸이 기억하는 어머니는 부엌으로 상징되는 어머니, 빨래를 개는 어머니인 것이다.<sup>29)</sup>

28) 박완서 문학전집 6, 『그 여자네 집』, 문학동네, 2006. 69-71쪽. 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페이지만 명기한다.

29) 김은정, 「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1집, 2012, 316쪽.

더 좋은 건 빨래 개키는 솜씨가 돌아온 거였다. 어머니는 빨래가 약간 축축할 때 걷어다가 어찌나 정성을 들여 반듯하게 펴서 개키는지 내 복도 꼭 다림질 해놓은 거 같았다. 그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어머니만의 솜씨였다. 어머니의 손은 아직도 든든하고 예뻐다. 아, 아, 빨래를 꼭 다림질해 놓은 것처럼 개키는 우리 엄마 손, 이러면서 어머니 손을 어루만지고 있노라면 경배하며 입 맞추고 싶은 따뜻한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환각의 나비』, 74쪽)

이렇게 화자(딸)가 강렬하게 원하는 어머니의 복구는 바로 어머니 역할로서의 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그리고 화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어머니’를 되찾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제한적 의미로서의 어머니의 복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한 자아로서 어머니의 모습이 치매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즉 치매로 인한 어머니의 정체성 상실이 화자 딸이나 다른 가족에게 낯선 것은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기억을 잃고 원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문화재적인 옛날 집이 아니라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귀살스러운 옛날 집인데도 영주는 이상한 힘에 끌려 차츰차츰 다가갔다. 다가가면서도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주춤거렸다. 느닷없이 하숙 치던 종암동 집 생각이 났다. 그냥 생각이 난 것뿐 비슷한 것 같지는 않았다. (중략)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중략)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환각의 나비』, 94-95쪽)

이렇게 화자인 딸이 반년 만에 찾은 어머니의 모습은 딸이 그토록 원

30) 위의 논문, 317쪽

하던 ‘어머니의 모습’으로의 복원이 아니라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가벼움’의 모습이다. 어머니 역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인 것이다.

이와 같이 치매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어머니의 ‘인격 변화’를 낫설어 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딸의 내면 심리에는 어머니를 어머니 역할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자기 본위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작품의 전제 과정에서 서술자 딸이 마침내 어머니 역할로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어머니를 수용하게 되는 점에서 그의 보다 성숙한 태도 변화를 보여 준다. 이러한 성숙함은 바로 후반기 작품일수록 화해와 수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박완서 노년소설의 주제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완서의 노년소설에서 치매는 당사자의 감추어진 인격이 치매라는 상황을 통해 드러나듯,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감추어져 있던 위선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이 점은 박완서 문학의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인 ‘허위의식’과도 맥이 닿아 있으며, 질병 자체가 아이러니의 속성<sup>31)</sup>과도 관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는 어머니의 정체성 상실을 계기로 ‘딸’이 파악하고 있던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만 갇힌 왜곡되고 편벽된 모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머니를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치매’는 치매 노인을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 증상인 ‘인격 변화’의 증상을 통해 역할로서의 인격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준다. 치매의 이러한 특성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음으로써 진정한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인생의 가장

31) 이 점은 Horst S. and Ingrid Daemrich의 ‘질병의 비유 기능’의 11개의 항목에서 볼 때 “질병이 수수께끼의 기능을 떠맡으며 미래의 해결에 있어 예리함과 긴장을 높인다”는 질병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Horst S. and Ingrid Daemrich, *Themes and Motifs in Western Literature*, Francke Verlag, 1987, 90-91쪽 참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 준다.

## 5. 결론

문학의 대상으로서 질병은 단순한 소재만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징성과 은유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질병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문학을 통해 각 작품의 주제적 의미에 더욱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을 단순한 소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각각의 노인성 질병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 중 크게 암, 중풍, 치매를 중심으로 질병으로서의 의미와 주제론적 특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암, 중풍, 치매와 같은 질병은 단순히 노년기의 대표적인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와 아이러니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먼저 ‘암’은 일반적으로 은유화된 특징인 ‘빠른 전이 속도’와 ‘광포함’의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라는 시간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노년기의 ‘암’은 ‘예정된 죽음’을 품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아이러니한 측면을 지닌다. 이 점은 노년기 ‘암’은 전이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과 죽음이 온전하게 예정되어 있는 질병이라는 특징에서 연유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육체의 상황이다. 특히 박완서의 작품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육체’와

‘아직도 왕성한 성욕’을 대비하여 보여줌으로써 ‘중풍’이 가진 욕구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육체와 정신의 불협화음을 통한 생의 아이러니함까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치매는 육체적인 손상보다는 자아의 훼손과 인격 파괴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 준다. 이 점으로 인해 치매는 박완서 노년소설의 가장 많은 작품에서 다루어지며 가장 고약한 질병으로 다루어졌다. 치매 증상 중 ‘인격의 변화’가 크게 부각됨으로써 치매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의 문제로까지 전이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치매는 ‘치매’ 당사자의 감추어진 인격이 치매라는 상황을 통해 드러나듯,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감추어져 있던 위선과 허위의식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며, ‘어머니 역할’로만 어머니를 파악하던 내면 심리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어머니를 파악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인생의 아이러니한 면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박완서의 노년소설에 등장하는 각 질병들은 단순히 노인성 질병이라는 단순한 소재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독특한 병리적 상징으로 인해 노년기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 준다. 또한 작품의 발표 연대에 따라 노년을 대하는 작가 의식의 미묘한 변화가 각 ‘질병’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박완서 노년소설의 노인성 질병인 암, 중풍, 치매는 공통적으로 시간, 육체의 욕구, 인격의 변화 등을 통한 생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박완서 문학의 대표적 주제라 할 수 있는 ‘허위의식’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질병 자체의 비유가 가진 아이러니한 성격과도 관련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박완서, 『배반의 여름』, 박완서단편선집 2, 문학동네, 2006.  
『저녁의 해후』, 박완서단편선집 4, 문학동네, 2006.  
『그 여자네 집』, 박완서단편선집 6, 문학동네, 2006.  
『그리움을 위하여』, 박완서단편선집 7, 문학동네, 2006.

### 2. 논저

#### [단행본]

- 권중돈 외 5명, 『치매와 가족』, 학지사, 2002, 335-341쪽.  
김동기·김은미, 공저, 『사회 적응의 노인심리학』, 학지사, 2010, 210-287쪽.  
김윤식·김미현, 『소설, 노년을 말하다』, 황금가지, 2004, 280-285쪽.  
김치수, 『삶의 허상과 소설의 진실』, 문학과지성사, 2000, 112-128쪽.  
모선희 외 3인,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220-234쪽.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백남문화사, 1996, 169-286쪽.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1945-1990』, 민음사, 2002, 288-293쪽.  
정옥분, 『성인 노인 심리학』, 학지사, 2008, 520-605쪽.  
한경희 외 9명, 『노인성 치매 연구』, 교문사, 2002, 15-27쪽.  
홍숙자, 『노년학 개론』, 도서출판 하우, 2010, 320-342쪽.

#### [논문]

- 김미용, 「박완서 소설 연구-체험과 목격을 통한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남대 석사논문, 2009.

- 김소연,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년의식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영경, 「박완서 소설의 노년문제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영택·신현순, 「박완서 노년소설연구-동거자와 여성노인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68집, 어문연구학회, 2011, 401-425쪽.
- 김은정, 「모녀서사를 통해 본 ‘치매’의 상징성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1집, 2012, 303-327쪽.
- 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3집, 2013, 313-340쪽.
- 류종렬,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사」, 『한국문학논총』 제50집, 한국문학학회, 2008, 501-536쪽.
- 문수경, 「중풍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가족지지와 선행대처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제27권 3호, 2007, 563-578쪽.
- 박현실, 「한국 노년소설의 갈등 양상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서형범, 「노년문학의 세대론과 전망-」, 『시민인문학』 제 21호,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9-36쪽.
- 송영희, 「중년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연점숙, 「페미니즘과 노년차별:페미니즘 안팎의 타자, 노년여성」, 『영미문학페미니즘』 제17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9, 107-129쪽.
-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27쪽.
- 이선옥, 「박완서 문학의 여성성-‘집’과 ‘밥’의 기억을 통한 여성들 간의 소통」,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59-82쪽.
- 이수봉, 「박완서 노년소설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인수, 「뇌졸중 노인을 위한 집단상담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12권 2호, 2001, 209-224쪽.
- 이정숙,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들 삶의 변화 양상- ‘긍정적으로 늙어가기’의 관점에서」, 『현대소설연구』 제4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247-279쪽.
- 이준우 · 이현아 · 황준호,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에 관한 인식」, 『한국노년학』 제31권 3호, 한국노년학회, 2011, 711-732쪽.
- 임선숙, 「1970년대 여성소설에 나타난 가족담론과 이중성 연구: 박완서와 오정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박사논문, 2010.
- 전홍남, 「박완서 노년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Ⅱ)」, 『국어문학』 제49집, 국어문학회, 2010, 111-130쪽.
- 정미숙 · 유제분, 「박완서 노년소설의 젠더시학」,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273-300쪽.
- 정영자, 「소설 속에 나타난 여성의 삶과 나이먹기」, 『여성연구논집』 제16집, 신라대학교, 2005, 5-40쪽.
- 조희경,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 나타난 ‘존재론적 모험’의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31집, 우리문학회, 2010, 601-629쪽.
- 최명숙, 「한국 현대 노년소설 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최선희,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삶- 『너무도 쓸쓸한 당신』을 중심으로-」, 『한국 말글학』 제26집, 한국말글학회, 2009, 139-171쪽.
- 최정선, 「박완서 노년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문예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14.
- 하수정, 「노년의 삶과 박완서의 페미니즘」, 『문예미학』 제11호, 문예미학회, 2005, 79-97쪽.
- Daemmrich, Horst S. and Ingrid Daemmrich, *Themes and Motifs in Western Literature*, Francke Verlag, 1987, pp.90-95.

Meyers, Jeffrey, *Disease and Novel 1880~1960*,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5, pp.3-15.

Sontag, Susan, *Illness as metaphor*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  
후, 2002.), pp.3-152.

<Abstract>

## A study on the meanings of diseases in old age novel by Park Wan-suh

Kim, Eun-jung

This study researched the thematic sense of cancer, stroke, and dementia which are the senescence diseases appearing in the novels by Park Wan-suh. Through this work, we were able to know the fact that those diseases are not just materials of the novels, but they keep various symbolical meanings and ironical properties.

First, cancer in her novels does not function as the ordinary metaphorical sense of rapid spread or violence, but function as the sense of device for preparing noble death. This sense originates in the fact that the pace of cancer of old age is not rapid, and it is the disease being expected to die.

The important property of stroke is the situation of body that it can not move as one wishes. The author shows an ironical aspects of the disease by contrasting the immovable body and the alive sexual desire. Moreover, the discord of body and spirit can be interpreted as suggesting the irony of our lives themselves.

The disease dementia represents some images, the damage of self, and the destruction of personality, rather than the physical damage. The disease is a clue to reveal the hypocrisy and false awareness of the family members, as the hidden self of dementia patient is exposed through the situation of that disease. And, the roles of mother and

daughter can be changed, so the daughter can understand her mother as human exactly, in virtue of the disease.

The novels by Park Wan-suh show the diverse aspects of the old ages owing to its inherent pathological symbolism of the diseases, and highlight the irony of life especially. So, if we focus on the diseases appearing her novels, we may get to know the subtle change of Park's writer consciousness clearly, which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year of announcement of her works.

Key Words : Park Wan-suh, senescence diseases, cancer, stroke, dementia, thematic sense, irony, hypocrisy

■ 논문접수 : 2015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5년 8월 10일  
■ 게재확정 : 2015년 8월 20일